

SSRO에 있어서 상행지의 위치를 수정하는 방법

김재승·장현호

서울중앙병원 치과

상행지와 하악골체에서 시술되는 Sagittal split osteotomy는 골편의 접합부가 넓어 치유가 좋고 골절단후에 하악골체부분을 전후방, 상하방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턱교정수술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IVRO등의 기타 수술방법보다 Rigid Fixation이 용이하며 수술후 약간고정 기간이 짧아서 수술 후 환자의 불편이 적다.

또 한가지가 과두부를 포함한 근심골편의 위치 문제인데, 잘못된 위치때문에 발생하는 재발이나 개교양상등의 합병증, 후유증은 SSRO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술자는 model surgery시의 하악골체부

의 전후·상하·좌우 이동량과 수술시 하악골체부의 하연 등의 해부학적 위치변화를 참고로 과두를 포함한 근심골편을 위치시키고 골편의 고정이 끝난 후에 약간고정을 제거하고 교합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종 수술후에 근심골편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에 관한 증상은 약간고정이 되어 있을 때 과두부위의 동통으로 나타나고, 근심골편의 변위가 적은 경우에는 동통은 없으나 약간고정을 제거하면 원래 계획하였던 교합으로부터 개교양상을 나타내는 변위를 관찰하게된다.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사진과 임상적 관찰을 참고로 골편의 고정을 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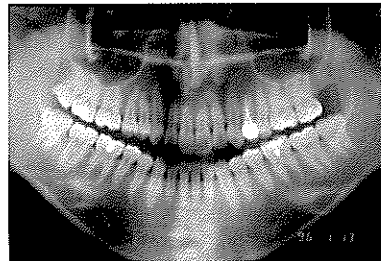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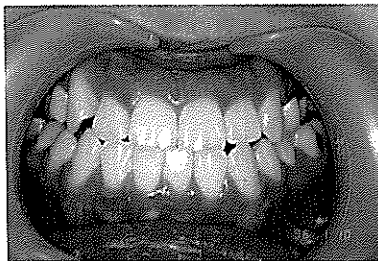


그림 1. 수술전 교합과 panorama 사진 : 하악전돌증의 classⅢ 부정교합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고정방법과 환자의 협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국소마취로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본 증례는 수술 후 openbite가 관찰되어 수술 후 4일에 국소마취하에서 골편을 다시 고정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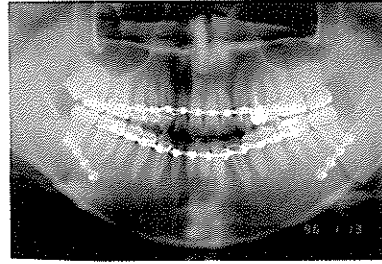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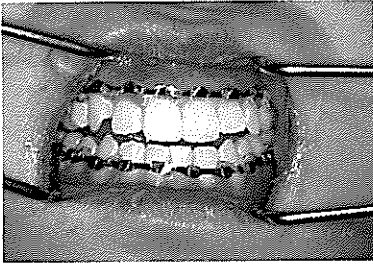


그림 2. 수술직후의 교합과 panorama 사진 : 전치부의 openbite를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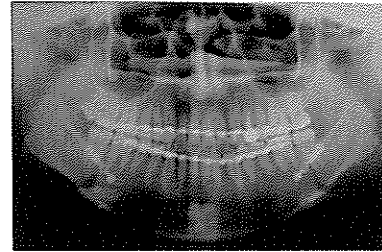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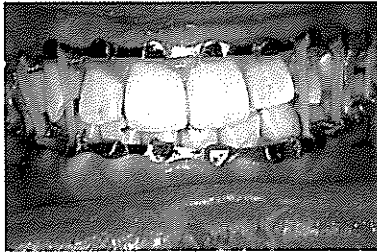


그림 3. 골편고정을 다시 한후 교합과 panorma 사진 : 그림2에서 보였던 openbite가 해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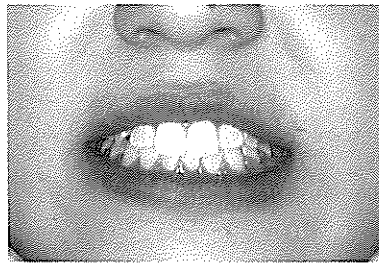


그림 4. 수술후의 교합 : 수술후 6주째의 교합으로 약간고정없이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